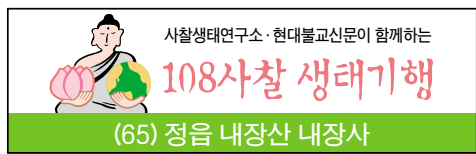




활엽수와 기암의 조화 그대로 '법당'

내장사에서 원적암, 벽련암을 거쳐 일주문에 이르는 구간은 낙엽활엽수림지대가 '숲의 바다'를 이루고 있다. 내장산 서래봉을 등에 업은 내장사 벽련암의 모습이 조화롭다.



녹지자연도(綠地自然度)란 환경부가 자연생태계의 장기적인 보호계획을 세우기 위해 녹지공간의 자연성을 나타낸 지표이다. 즉, 녹지식생이 없는 저수지나 강을 0으로 하여, 녹지 식생이 거의 없는 시가지를 1등급, 논밭 등 경작지를 2등급, 장명림(眞齡林)과 원시림을 8등급과 9등급, 고산지대의 천연림을 10등급으로 정해놓았다.

내장사 주변은 해인사, 화엄사, 법주사, 천은사 주변의 숲과 함께 개발을 금지하고 보전해야 할 8~9등급 숲에 해당된다.

문헌에 따르면 내장산(內藏山)의 본래 이름은 산중에 있던 영은사(靈隱寺)의 이름을 따서 영은산이라고 불렀다가 나중에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근세의 인물인 화명선사의 사리탑에 병서된 내용이 이르기를, 내장사는 백제 무왕 때인 636년에 영은조사가 창건했다고 한다. 조선 중종실록에 승도락관 사건(僧徒濶亂事件)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내장사 말고 영은조사가 세운 영은사가 별도로 존속했던 것으로 나와 있다.

내장사로 들어가는 길은, 금선계곡에서 발원해 내

장호로 유입되는 내장천 계류를 따라 난 '자연사랑길'이다. 길 오른쪽으로는 잔디밭 군데군데 조경수들이 자리하고, 계류 쪽으로는 곰의발채, 누리장, 왕버들, 비목, 신나무, 느티나무, 들메나무, 풍개나무, 층층나무, 산딸나무, 때죽나무 등의 자생수종이 보인다.

자연사랑로를 끼고 흐르는 계류는 내장천의 상류로, 벼들지와 갈겨니가 우점종으로 서식하고 있다. 국립공원지역을 벗어나 내장호에 이르는 구간에는 돌고기, 긴불개, 동사리, 왕종개, 피라미, 물마자, 동사리, 모래무지, 밀어, 왜매치, 참종개 등이 나타난다.

내장사 계류에는 상수원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피서객들이 들어와 물놀이를 하고 고기를 굽고 있었다. 게다가 계류 곳곳에 허연 거품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합성세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성세제는 자연상태에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물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다.

계류를 막아서 조성한 우회정 호수에는 갈겨니와 같은 자생어종도 있지만, 비단잉어와 같은 대형 양식어종도 함께 서식하고 있다. 관상어종인 비단잉어는 고유한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서는 방류하지 않는 것이 좋다.

놀랍게도 이 인공호수에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이 살고 있다. 얼마 전에 물고기를 사냥하고 있는 수달이 무인 카메라에 잡혀서 언론을 탄 적이 있다. 수달은 내장사 주변 생태계의 지표종으로, 수달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광객 출입을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우회정을 지나면 왼쪽으로 케이블카 승강장이 있다. 단풍철이 아니라도 케이블카 안에서 내려다보는 내장산의 활엽수 임해(林海)는 또 다른 승경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케이블카 상부역에는 음료수 자판기들이 놓여 있고, 전망대 매점에서는 술과 음식을 팔고 있다. 유원지에서나 볼 수 있는 이런 풍경은 국립공원 안에서는 규제되어야 마땅하다.

전망대에 서면 월명봉-서래봉-불출봉-망해봉-연지봉으로 이어지는 능선이 공룡의 갈기처럼 꿈틀거리며 지나간다. 숲의 바다 속에 자리한 벽련암도 한눈에 내려다보인다.

내장사로 하산하는 길은 활엽수 숲보다 속으로 나 있다. 하산길 도중에 천연기념물 91호로 지정된 굴거리나무 군락지가 자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에 자리한 굴거리나무 군락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굴거리숲을 내려오면 금선굴에서 내려오는 계류를 만난다. 내장사 앞에서 원적암 물과 합류하여 명당수를 이룬다. 내장산 계곡은 노랑할미새와 검은맹기해오라기와 물총새 등 계류성 여름철새들이 눈에 띈다. 피서객들의 발걸음이 사라진 아침이면 검은맹기해오라기가 계류를 거슬러 올라와 물고기들을 사냥한다.

일주문에서 사천왕문까지는 단풍나무 108그루가 터널을 이루고 있다. 단풍철이면 마치 불구멍이 속을 지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이 단풍나무들은 100여년전 스님들이 심은 것으로, 이제 노거수가 되

어 노쇠의 빛이 역력하다. 수백년 동안 부도전을 지켜온 천년송(千年松)은 가슴 높이의 둘레가 3m에 이르고, 키가 40m에 가까운 노거수이다. 안타깝게도 몇 해 전에 고사하고 말았다. 금명간에 이 천년송을 베어낸다고 한다. 천년송과 같은 노거수들은 대개 우성으로 유전하므로, 죽기 전에 후계목을 키워놓아야 했다.

노거수의 죽음은 나무 한 그루 사라지는 것 이상의 생태적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내장사의 역사와 함께 해온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여 비록 고사목이라도 베어내지 말고 안내판이라도 세워 두고 기린다면 교육에도 좋을 것이다.

내장사에서 원적암-벽련암을 거쳐 일주문으로 내려오는 3.6km 구간은 내장산의 식생을 잘 보여주는 낙엽활엽수림지대이다. 전망대에서 내려다보이면 바로 그 숲의 바다이다. 내장사하면 가을단풍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것도 이 낙엽활엽수림의 바다 덕분이다.

내장산은 남방계식물과 북방계식물이 함께 자라는 지역으로, 군락을 이루는 주요 식물로는 갈참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 느티나무, 서어나무, 개서어나무, 단풍나무, 층층나무-비목나무 등 대부분이 낙엽활엽수들이다. 내장사의 아름다운 단풍도 이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원적암에 이르기 직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람한 몸집을 자랑하는 비자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높이가 10m를 훨씬 웃돌고 수령도 600년이나 되는 보물급 노거수들이다. 원적암 비자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북쪽의 한계지역에 자라고 있어서 식물 분포학적 가치가 매우 높다.

내장산의 희귀 초본으로는 백양더부살이가 첫손에 꼽힌다. 백양더부살이는 1928년 일본인 학자 나카이 다케노신이 내장산 남장계곡에서 처음 발견한 후 75년 만에 새로 발견된 희귀종이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는 백양더부살이는 속 뿌리에 기생하는 여러해살이풀로, 현재 내장산 국립공원 밖 내장천 하천 둔지에서 갓길과 돌 비탈에 많은 개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원적암에서 벽련암으로 가다보면 '사랑의 다리'라는, 이름이 좀 생뚱맞은 곳을 지나게 된다. 이곳은 너털이라 불리우는 테일러스(Talus)지역이다. 테일러스는 8000~1만년전 빙하기 때 생성된, 물리적 풍화의 산물이다. 수직으로 솟아있던 높은 바위들이 풍화작용으로 산산이 부스러져 지대가 낮은 곳으로 굴러서 넓게 쌓인 곳이다.

벽련암의 본래 이름은 백련사(白蓮寺)였다. 절 뒤로는 웅장한 서래봉이 솟아 있다. 절 뒤에 대나무 숲을 조성한 것은 서래봉의 암벽에서 쏟아지는 기(氣)를 순화시키기 위한 일이었다. 법당 앞뒤에 노거수로 자란 단풍나무가 노장처럼 자리하고 있다.

벽련암에서 일주문까지도 식생은 낙엽활엽수 세상이다. 낙엽활엽수는 곤충을 먹여살리는 나무이다. 내장산에는 764종의 곤충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딱정벌레류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식생의 특징에서 비롯된다. 벽련암을 내려오면 백년약수가 있다. 백년장수(百年長壽)를 기원하는 의미이지만, 원래 백련사 절 이름을 따서 '백련약수'였다고 하니 본래 이름을 되찾아줄 일이다.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http://cafe.daum.net/templeco

주변 숲 녹지자연도 8~9등급으로 우수, 개발 금지해야 인공호수서 수달 관찰... 생태계 지표종으로 보호 필요 백양더부살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희귀 초본



내장사는 일주문서 사천왕문까지 108 단풍터널을 이룬다.



수령 6백년 정도되는 보물급 노거수 비자나무.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경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인)

윤디날 예수재

예수재는 살아있을때 사후를 위하여 스스로 기도하고 공덕을 쌓아서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고 극락 왕생 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불교의식입니다.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중등 팔각분축접등 공단등 주름등(만월분축등)

신상품

예수재·천도법회등

봉 至心歸命禮 특별전 축

- 일 시 : 2006. 9. 9(토) - 10. 31(화)
- 장 소 : 수덕사 근역성보관 041)337-2902
- 인 터 넷 : www.jisim.net
- 전시유물 : 중국 요녕성박물관 소장 21점 / 한국 소장작품 다수 홍콩 Chris Hall Collection 소장 26점

※ 직물로 표현한 우수한 불교문화제가 전시되며, 사부대중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저렴하게 제작해 드립니다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